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협상 기한 30일 연장

우선협상대상자, 일부 안건 이견 제시하며 연장 요청 시 "아파트 세대 감축 등 3가지 원칙 지켜지도록 노력"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체결 기한이 30일 연장됐다.

광주시는 5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약 체결을 이같이 연장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3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2일까지 두

달을 기한으로 협상을 벌였다.

광주시는 이용성 시장이 제안한 지역 발전 기여, 한류 콘텐츠 거점 도시 조성 능력이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확실한 참여 보증,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동주택 세대수 감축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아파트 위주 개발 억제,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 산업 운영 등 협상 안건을 제시했으나 컨소시엄은 일부 안건

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컨소시엄과의 이견을 좁히고 미답변 협상안에 일정 기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모지침에 따라 협상 기한을 30일 연장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추가 기한 내 시민과 전문가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컨소시엄에 요청했다"며 "아파트 세대수 감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3가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공모 당시 한류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체험·공유하는 복합 플랫폼 조성을 콘셉트로 1

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이 제시한 예상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1조46억원)와 전략산업 시설 건설비(8052억원)만 1조8098억원으로 아파트 등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와 주상복합, 상업시설 개발 등으로 받아 들인 사업비로 한류 문화콘텐츠 시설을 만들 우려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주민 이익 공유·수산업 공존 해상풍력 주민참여모델 개발 전남도, 용역 착수 보고회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주민 이익 공유,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주민참여모델' 개발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운영태정 부부지사 주재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대표, 목포·신안수협과 지역 도의원, 어구어법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 주민참여모델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개발 ▲REC(재생에너지 증명) 추가 가치지 대상 주민 범위 산출 ▲주민의 자금 조달방안 ▲발전에 따른 지원사업 ▲상생협약서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조성 ▲수산업 공존 국내외 사례 ▲발전단지내 조업 및 양식방법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가 제99회 어린이날인 5일 오후 보성군 보성을 우산리 다문화가정에서 '환경 조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성읍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구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나 오는 11월까지 수행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의 자금조달 방안, 배당금 지급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바다에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장 개발과 조피볼락·돔 등 해양별 특성에 맞는 어류 양식단지 조성 ▲인접한 육상에 수산물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가공 집적화단지 건립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운영태 부지사는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사업인 만큼,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하면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관이 진솔한 소통과 함께 상생정진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8월 설립 국립섬진흥원, 섬 관련 정책 플랫폼 역할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주장

국립섬진흥원이 섬을 둘러싼 마을 공간, 숲 공간, 바다 공간이라는 구성요소에 맞게 관련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섬진흥원은 오는 8월 전남 목포에 들어선다.

광주전남연구원은 5일 '광주전남정책브리프'을 통해 국립섬진흥원 출범에 따른 섬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섬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섬 정책이 섬의 생태계 가치 제고보다는 관광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며, 국립섬진흥원의 출범을 계기로 섬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미래세대

에게 그 가치를 전승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섬의 가치는 영토적 가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에서 살펴야 하며, 특히 생태계 서비스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전남연구원의 제안이다.

섬 정책은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섬의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섬 주민의 국민 기본권 보장, 국민의 행복권 추구 측면에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섬 정책은 마을은 행정안전부, 해양과 무인도는 해양수산부, 숲은 산림청이 관리하며, 이 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필요한 공간과 영역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립섬진흥원이 이들 정부부처의 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전남도의 섬발전 지원센터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협치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준 섬발전지원연구센터장은 "섬 정책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과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마을과 바다와 숲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립섬진흥원은 바다, 마을, 숲 등 섬 구성 요소의 지속성을 목표로 섬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처 간 섬 정책을 조율하는 '섬관리위원회'와 섬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전남도, 크루즈업 등 4개 추가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용자지원 및 상환유예 대상에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포함했다. 지원 한도는 여행업 2억원, 관광유람선업 3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시설자금만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운영자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용자지원 대상 추가 확대에 나선 것이다.

올 상반기 용자지원 대상은 11개 업체 39억원 규모다. 선정 업체는 5월부터 거래 금융당국에 용자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용자지원을 받으면 된다. 또 관광업계가 상반기 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올 하반기 용자지원 공고 계획도 앞당겨 5월 중 시행, 용자지원을 조기에 실행할 방침이다.

상환유예 대상도 확대했다. 지난해 용자금 상환을 1년 유예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미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용자업체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를 바라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내 관광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 연구개발 공모 42개 선정 전남농기원, 예산 446억 확보

전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올해 농업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서 42개 과제에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인 4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한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9개 과제 172억원이 선정돼 향후 5년간 신품종 개발, 농산물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팜 다부처 R&D 사업단에서는 8개 과제 223억원을 확보했다. 4년간 빅데이터, 이미지 분석, 농작업 로봇, 축산 자동화 연구로 디지털농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스마트팜 관련 업체 5곳과 함께 공동 연구팀을 구성, 2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동 연구팀은 영상기반 과채류 생육 측정과 진단·분석,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육묘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국립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모사업에 3과제 51억원이 선정됐다. 전남도내 대학, 관련 업체와 함께 축산 약취지감, 사료개발, 화훼 종묘 생산 체계화 연구를 수행한다.

전남농업기술원 박병준 연구개발국장은 "올해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도내 대학 및 업체와 함께 선도 과제"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종자 분야 선도 연구기관으로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미래 전남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